

민주노총 1만5천명 전국동시다발 윤석열 즉각파면 사회대개혁 외쳐

- ‘윤석열 즉각파면·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전 조합원 행동의 날’ 개최
- 전국 동시다발, 서울 5천명, 전국 1만5천 조합원 참가
- 양경수 위원장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 반복 않도록 더 거세게 싸우자”

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여명이 오늘(15일)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열고 윤석열 즉각파면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 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행진해, 동십자각에 설치된 비상행동 본무대회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또다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극우 세력이 난무하는 광폭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광장에서 외쳐지는 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부터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보내준 응원과 환호는 우리가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도, 우리 사회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세게 더 힘차게 더 강하게 싸우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두달 됐다는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원 조합원은 “지난 1월 4일 한강진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시민으로 연대 발언했는데 오늘은 조합원으로 무대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옆에 서서 함께 하는 것,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보다 평등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조직을 위해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봉환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 부위원장이 힘찬 결의를 밝혔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곧바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1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붙임]

1. 양경수 위원장 발언
2.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원 조합원 발언
3.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봉환 조합원
4.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 부위원장

[첨부] 사진 파일

[붙임] 1. 양경수 위원장 발언

노동자들은 윤석열 취임, 그때부터 계엄과 다름없는 삶을 노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노동권은 공격당했고 노동조합은 탄압당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1년 이상 이어 왔습니다.

그 힘으로 윤석열의 계엄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고, 끝내 남태령을 넘어, 한남동을 넘어,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것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극우 세력과 파시즘이 난무하는 광폭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광장에서 외쳐지는 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 혐오가 없는 세상,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윤석열과 그 일당의 패악질이 또다시 이 사회를 장악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길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끝끝내 광장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내란 세력을 단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박근혜를 파면한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았다는 푸념과 한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광장의 권력이 광장의 주체가 되어 권력을 교체하는 새로운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12월부터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보내준 응원과 환호는 우리가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선두에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우리 사회의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들 더 거세게 더 힘차게 더 강하게 싸웁시다. 그래서 다시는 후회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냅시다.

30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결심으로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시 머리띠를 동여맸습니다. 힘차게 주먹을 쥐고 다시 투쟁에 나섭시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투쟁 민주노총과 함께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붙임] 2.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원 조합원 발언

저는 민주노총 누구나지회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함께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 세비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혜원입니다. 우선 민주노총 전 조합원 행동의 날에 발언 할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 한강진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조합원이 아니었고 시민으로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몸소 느꼈다, 시민들의 부름에 민주노총이 응답했듯이 시민들 또한 민주노총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제가 이제는 조합원이 되어서 민주노총의 뒤가 아닌 옆에 서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이것이 저에겐 하나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옆에 서서 함께 하는 것,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바로 연대라고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정부와 언론의 민주노총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실제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한 경험은 거의 전무했으며, 노동 운동은 저에게 텍스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내란 사태 이후 광화문뿐만 아니라 여러 투쟁현장에서 연대하고 투쟁하며 온몸으로 체화했습니다. 공권력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동지들의 결의들을 보았습니다.

밤 하늘에 그 어떤 별들보다 빛나는 마음들을 동지들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우려하고 계신 지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연대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청년 조합원으로서 그 의문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지들에게 하는 다짐을 외쳐보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배울 지점들이 있다면 분명히 배우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나눌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어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새내기 조합원들과 시민연대 동지들이 함께 다짐해 주실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보다 평등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조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내부의 문제에도 묵인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바뀌는 세상에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다짐과 약속들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연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봉환 조합원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살아왔고, 건설 노동자에겐 건설노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 온몸으로 느끼며 90년대 건설 노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건설 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내 한번 윤석열에 맞서 양회동 열사가 산에 간 지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긴 얘기보다 양회동 열사의 유서로 발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지부 3지대장 양회동입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우리 건설 노동자는 80년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쉽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다니면서 천대받지 않고 내 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꼭 승리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치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원건설지부 3지대 대장 양회동 올림’

윤석열 정권의 모진 탄압으로 건설 현장은 망가졌고, 건설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었지만 건설노동조합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싸워왔습니다. 살맛나는 건설 현장으로 바꾸는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다 같이 외쳐봅시다. 열사 정신 계승하여 사회 개혁 실행하자. 투쟁

[붙임] 4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 부위원장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의 계엄령 1호는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은 업무개시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폭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탄압했던 그 폭력을 기억합니다.

윤석열에게 계엄군과 내란공범이 있다면,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결과 연대는 계엄군의 폭력보다 강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내란세력의 탐욕보다 강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단순히 한사람의 퇴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퇴진을 넘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를 복원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특수고용노동자 탄압도 끝장냅니다.

동지들! 3월 7일,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내란세력을 끝장내는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행진이 아닙니다. 윤석열 계엄령 1호, 2호에 맞서 싸운 화물·건설 노동자들이 시작하는 반격의 행진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결의,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 화물연대가 힘찬 경적을 울리며 시동을 걸겠습니다.